

문서중앙화의 한계를 뛰어넘는 문서가상화

“ A사단법인은 문서가상화(VCI)  Wrapsody 로 문서 관리, 협업, 보안에 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



Company

A사단법인은 한국에서 설립돼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 사회복지 사업과 국제 개발협력 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글로벌 아동 권리 전문 NGO입니다. 전문적인 구호개발사업을 바탕으로 사업 규모와 역량 측면에서도 유수의 국제 NGO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NGO 단체로 성장 중에 있습니다.



Challenges

전문적인 구호개발사업을 수행하는 A사단법인은 그동안 DLP 중심의 보안 체계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사업 프로젝트 문서들은 별도의 관리체계 없이 사내 서버에 매년 누적되고 산재돼, 문서의 위치와 담당자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해당 문서들이 사업 규모와 기부금, 기부 명단, 혜택 명단 등 개인정보부터 사업에 핵심적인 중요 정보를 담고 있는 만큼, 안전하면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문서의 효율적인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내부 직원 등에 의한 문서 손실/유출에 대한 방안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준수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Solutions

가장 먼저 문서가상화 플랫폼 Wrapsody를 통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했던 산재된 문서의 효율적 관리를 실현했습니다. 파일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드라이브 곳곳을 확인했던 기존과 달리, 문서 중심의 체계인 문서가상화(VCI) 개념을 도입한 덕분에 손쉽게 파일의 위치와 담당자까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파일을 열람하면 최신버전으로 자동 동기화돼 버전 관리가 되고, 중복문서, 사용하지 않는 문서에 대한 사용내역 관리를 통해 업무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이외에도 Wrapsody 백업하기와 복원하기 기능을 통해 랜섬웨어 등 최신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까지 안전하게 갖췄습니다.



Benefits

A사단법인의 경우, 이제 Wrapsody의 문서가상화(VCI) 기술을 통해 사업에 관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매년 변경되는 문서의 연결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VDI 환경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문서 관리 체계를 구축하면서 문서중앙화의 한계까지 극복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 위치에 관계 없이 활용 가능한 문서가상화(VCI) 덕분에 상시적으로 재택 근무 환경으로 전환해도 문제 없이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해져, 팬데믹 시대에도 유연하게 대응하는 IT 혁신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